

“홈기기부터 타투 프린터까지”… 일상에 스며드는 AI 혁신

K뷰티기술로 판 바꾸다

②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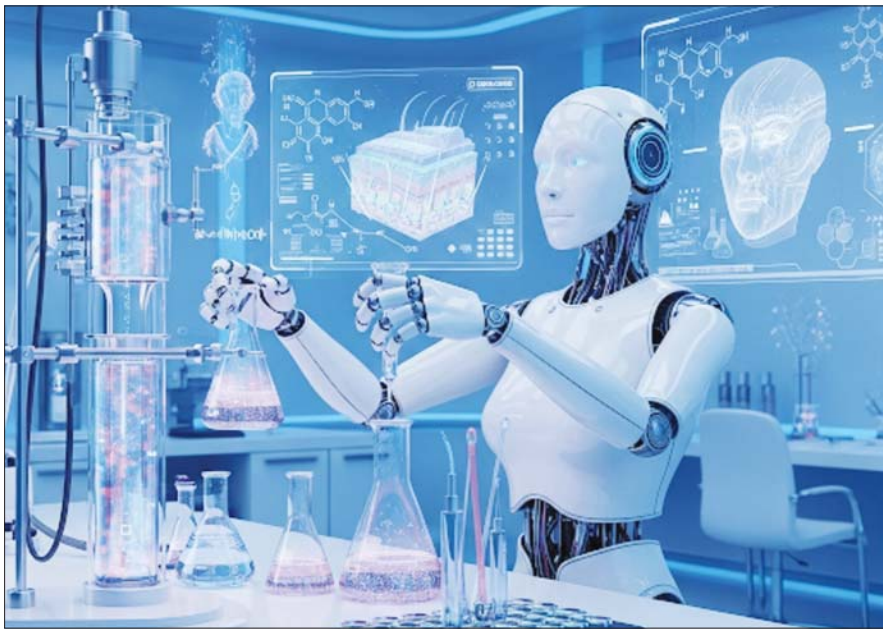
LG, 타투부터 성분설계 등 AI 접목
홈뷰티 기기 ‘수퍼폼’ 대중성 공략
2026년 ‘더후’ AI 신성분 첫 적용

아모레, ‘메이크온’ 새 기술로 재편
CES 6년 수상… AI추천 기술 공개
성수 매장선 로봇 맞춤형 서비스

국내 주요 기업들이 화장품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뷰티 테크 경쟁에 나섰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가정용 뷰티 기기는 물론 화장품 소재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단순한 뷰티를 넘어선 혁신 K뷰티 과학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첨단 기술력을 상용화한 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최근 새롭게 공개된 ‘LG 프라엘 수퍼폼 갈바니 부스터’는 홈뷰티를 위한 제품이다. 이 신제품은 미세 전류를 활용해 화장품 유효 성분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췄다. LG생활건강 화장품 연구소는 최적의 투과율



로봇이 미래 사회에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과 흡수율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630나노미터(nm) 파장의 LED가 콜라겐 생성을 돕고, 분당 8500회에 달하는 진동수는 피부 탄력을 관리해준다. 립스틱을 연상시키는 외형 디자인으로 일상 속 편의성까지 더했다.

소형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도 LG생활건강의 뷰티테크 기술을 집약한 제품으로, 다양한 타투 도안을 그려준다. 특히 LG 인공지능연구원이 자체 구축한 복합 정보처리 인공지능 ‘엑사원 아틀리에’가 도입됐다. 엑사원 아틀리에

는 약 3억5000만 장의 이미지,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학습해 꽃이나 자연, 기하학과 도형, 문자 등을 주제로 한 도안을 생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성한 인공지능 도안은 1만 가지가 넘는다.

뷰티 기기뿐 아니라 화장품 소재에서도 LG생활건강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LG 인공지능연구원의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신물질 발굴 전용 인공지능이다. 분자 단계부터 화장품 개발 공정까지 전체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순 빅 데이터 분

석을 넘어선 고도화된 기술이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하는 경우, 개발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는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브랜드 ‘더후’에서 인공지능 기반 고효능 성분을 담은 첫 화장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 측은 “임프린투는 개인화되고 있는 뷰티 유행에 맞춰 취향, 희소성 등에서 강점이 있고, 수퍼폼 갈바니 부스터, 화장품 등은 대중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LG생활건강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 접점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도 기존 피부연구 역량에 최신 기술력을 더해 혁신 제품을 연구하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들어 메이크온을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재단장하고,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젬 소노 테라피 릴리프’ 등 신제품을 연달아 내놓았다. 해당 제품들은 스킨케어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일찍이 2014년부터 메이크온을 라이프 뷰티 브랜드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재단장

을 통해 지난 4년간 개발한 신기술을 앞세웠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가전 및 IT 행사인 CES에서 6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CES에서는 ‘워너 뷰티 인공지능’을 공유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워너 뷰티 인공지능은 피부색, 얼굴형 등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추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미 색다른 소비자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성수에 위치한 아모레성수에 설치된 ‘커스텀 매치’는 초개인형 메이크업 서비스다. 화장품 전문 조제 관리사가 카이스트 특허 프로그램을 통해 피부 상담을 진행한 후, 테크니컬 로봇을 활용해 색상과 제형을 조합한 제품을 현장 제조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K뷰티 가능성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싼 게 비지떡’ 옛말… LCC, 가성비로 3년 연속 우위

국제선 탑승객 FSC 첫 추월 지방공항·단거리 노선 확대 신기재 도입으로 비용 절감

올해 상반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탑승객 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와 외국 항공사를 모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LCC 수요가 높아졌고, 신규 취항 및 재운항, 증편 등을 통해 수요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공항의 국제선 여객수(출발·도착 합산)는 총 4582만96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LCC 8개사의 국제선 이용객은 1578만1630명(34.4%)이었다. 이는 대한항공(947만



챗GPT로 생성한 LCC 항공사 이미지.

4488명)과 아시아나항공(618만1907명)을 더한 대형 항공사의 국제선 탑승객 1565만6395명(34.2%)보다 12만명 가량 많다. 상반기 기준 LCC 국제선 이용객 수는 대형 항공사를 처음 추월한 2023년 이래 3년 연속 우위를 보였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359만여명이 탑승해 상반기 LCC 1위자리를 차지했고 이어 진에어(347만여명), 티웨이항공(338만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LCC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가성비’를 찾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 수요에 발맞춰 신규 취항, 증편 등 좌석 공급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제주~중국 시안 운항재개 및 증편 등을 통해 중국노선 운항을 늘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제주~시안 노선을 주 2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했고, 지난 1일부터 인천~중국 웨이하이 노선을 주 10회로 증편 운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15일부터 제주

~싱가포르 노선에 주 5회 일정으로 취항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 7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이달부터 인천~괌 노선을 하루 3회 운항으로 증편하고 부산~괌 노선은 오는 23일부터 기존 주 4회 일정에서 주 7회 매일 운항으로 늘린다.이스타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부산~베트남 푸꾸옥 노선을 오는 26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주 2회, 9월 3일부터는 주 4회로 확대한다.

또한 신기재 도입을 통해 노후 기재를 교체함으로써 운항 안정성과 원가 절감 효과도 노리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보잉 737-8 항공기 2대를 도입했으며 현재 총 4대를 보유 중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차세대 광동체 항공기인 ‘A330-900NEO’

를 도입해 기단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이 완료된 B737-8 항공기 16대를 오는 2027년까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B737-850호기를 구매 도입하며 올해 들어 총 4대의 신형 항공기를 추가로 확보했고, 에어프레미아도 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잉 787-9 드림라이너 8호기를 도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운임이 저렴한 데다 장거리보다 부담이 덜한 단거리 국제선에 집중하는 LCC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며 “LCC들이 지방공항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린 점도 증가세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한 항공기는 리스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내외 변수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비트코인 12만 달러 눈앞… 기술주·법안 기대에 급등

기술주 랠리 타고 투자심리 자극 지니어스법 통과 기대감도 반영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강세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BTC당 12만 달러를 앞섰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력이 큰 AI·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가상자산의 제도화 법안으로 평가받는 ‘지니어스법’도 조만간 미 하원 표결을 앞두고 빠른 통과가 유력해서다.

1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일보다 약 0.09%내린 1BTC당 11만7568.78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사상 최초로 11만20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11일 장중에는 하루만에 7000달러 가깝게 상승한 11만8780.89달러를 기록한 이후 11만7000달러대에 거래 중이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강세다. 시가총액 2위

인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7.12% 상승했고, 시총 3위인 리플(XRP)은 23.68% 급등했다. 시총 4위와 5위인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도 각각 4.69%, 9.55% 올랐다. 대표적인 ‘밈 코인’인 도지코인도 20.3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여서다. 가상자산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의 주가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

최근 주가 상승률이 특히 높았던 엔비디아는 한 달 전과 비교해 약 14% 상승해 시총 4조달러를 넘겼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중국 수출용 저사양 인공지능 칩 ‘H20’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실적 하락을 겪었는데, 오는 9월 출시를 목표로 미 정부의 규제 기준에 맞춘 새로운 수출용 인공지능 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미 하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빠르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

위를 정의하고,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요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되는 만큼 지니어스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니어스법의 입법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에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오는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